

## 『黃帝內經』에 나타난 員方補瀉에 관한 考察

<sup>1</sup>嘉川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史學教室 教授

金鍾鉉<sup>1\*</sup>

### A Study on *Won Bang*(員方)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Method in the 『Huangdineijing』

Kim Jong-hyun<sup>1\*</sup>

<sup>1</sup>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principle of the Won Bang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method as mentioned in the 『Lingshu-Guanneng』 and the 『Suwen-Bazhengshenminlun』, which have contrasting properties.

**Methods** : The texts in each chapter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principle that matches the meanings of round[won,員] and angular[bang,方].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hapter 『Bazhengshenminlun』, a hypothesis was drawn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stract explanation of the round[won,員] and angular[bang,方] and the actual manipulation technique. This hypothesis was tested against other texts and annotations for further discussion.

**Results & Conclusions** : The expressions ‘bang[angular,方]’ and ‘won[round,員]’ refer to the same meanings in both chapters, as ‘to be upright’ and ‘to be smooth,’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hapters is that in the 『Lingshu-Guanneng』 the standard for Won Bang is the needler’s movements, while in the 『Suwen-Bazhengshenminlun』, it is the patient’s breathing. Moreover, while in the former the subjects of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are clearly divided into healthy qi and exterior pathogenic qi, in the latter the subject of manipulation is the deficiency and excessiveness caused by deviation of the healthy qi, thus making the subject of both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healthy qi. Based on these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the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of needling is divided into two methods; separating the healthy and pathogenic qi and manipulating the deficiency and excessiveness of healthy qi within the body.

**Key words** : Won Bang,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Huangdineijing, Bazhengshenminlun, Guanneng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Received(October 27, 2020), Revised(November 4, 2020), Accepted(November 4,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緒論

員方補瀉는 『黃帝內經』에 처음 제시된 刺鍼補瀉의 일종이다. 원문에 나타난 員과 方의 용법은 呼吸, 開闔, 徐疾 등의 방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종합보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수기 동작들을 총괄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員方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員方補瀉를 언급한 두 편은 상반된 설명을 제시하여 문제를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素問·八正神明論』의 경우 ‘瀉必用方’, ‘補必用員’이라 하여 瀉할 때 方을 쓰고 補할 때 員을 쓴다고 설명한 반면 『靈樞·官能』에서는 ‘瀉必用員’, ‘補必用方’이라 하여 補法과 瀉法에 따른 員과 方의 사용이 완전히 반대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대 注家들은 두 편의 시비를 가리거나 양자를 모두 만족하는 포괄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조차도 설이 분분하며, 해당 보사법이 후대에 크게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침구학 분야의 문헌도 부족한 상황이다.

員方補瀉와 관련해 발표된 선행 연구로는 趙銀龍,<sup>1)</sup> 談鈺濛,<sup>2)</sup> 謝子妍<sup>3)</sup>의 논문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八正神明論」의 분석에 집중했는데, 이편에 제시된 方과 員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난해하며, 「官能」의 설명을 오류로 보는 관점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미 알려지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補瀉의 원리를 대입해 員方補瀉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결과 원문과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으며 員方補瀉가 다른 보사법의 조합으로만 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에 윤기령<sup>4)</sup>이 鍼無補法 연구 중 일부로써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세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 1) 趙銀龍. 淺析補瀉與“方”“員”. 黑龍江中醫藥. 1. 1991. pp.42-43.
- 2) 談鈺濛 外 2人. “瀉必用方”, “補必用員”之新解. 湖南中醫雜誌. 32(5). 2016. pp.165-166.
- 3) 謝子妍. 少議“瀉必用方”, “補必用員”.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5(5). 2019. pp.583-584.
- 4) 윤기령 外 3人. 鍼無補法の 의미에 대한 考察—『黃帝內經』의 補瀉法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31(2). 2018. pp.141-153.

본 연구는 『黃帝內經』 두 편의 원문에 기초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모난 것(方)과 둥근 것(員)의 의미에 부합하는 補瀉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官能」에 나타난 員方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八正神明論」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후자의 경우 추상적 설명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적 동작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해당 補瀉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인지, 員과 方의 상대적 의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黃帝內經』에 관한 역대 주석과 침구학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 II. 本論

### 1. 瀉必用員, 補必用方

瀉必用員, 切而轉之, 其氣乃行, 疾而徐出, 邪氣乃出, 伸而迎之, 搖大其穴, 氣出乃疾.

補必用方, 外引其皮, 令當其門, 左引其樞, 右推其膚, 微旋而徐推之, 必端以正, 安以靜, 堅心無解, 欲微以留, 氣下而疾出之, 推其皮, 蓋其外門, 眞其乃存. 用鍼之要, 無忘其神.(靈樞·官能)<sup>5)</sup>

瀉할 때는 반드시 員을 쓰니, 누르고 문질러서 그 氣가 이에 운행하게 하고, (納鍼을) 빠르게 하되 천천히 빼내어 사기가 이에 배출되니 펼쳐서 맞이하는데 그 구멍을 흔들고 넓게 하여 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빠르다.

補할 때는 반드시 方을 쓰니, 겉으로 그 皮를 당겨 그 문(침을 놓을 곳)에 맞대고, 왼손으로는 중심을 당기고 오른손으로는 膚를 밀고서 조금씩 돌리면서 천천히 밀어 넣는데, 반드시 단정하고 안정하게 하며 마음을 단단히 하여 풀어지지 않도록 하며, 잠시 머물도록 하여 氣가 아래에 이르면 빠르게 침을 빼고 그 피부를 밀어 바깥문을 닫으면 眞氣가 이에 보존된다. 침을 쓰는 요체는 그 神을 잊지 않는 것이다.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06.

### 1) 員의 용법과 의미

『靈樞·官能』이 제시한 員의 용법은 자침 전, 자침 시, 자침 후로 구분된다. 자침 전에는 邪氣가 위치한 부위를 누르고 문질러서 氣가 행하도록 하는데, 邪氣가 병소에 고착되는 것을 막고 자침을 통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는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침 시에는 빠르게 納鍼하고 천천히 出鍼함으로써 外氣의 유입을 최소화하되 내부의 氣가 배출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出鍼 후에는 穴位를 흔들고 넓게 만들어 출구를 확장함으로써 잔존한 邪氣의 배출을 유도한다. 이처럼 員은 시침 전후의 행위가 動的이며 邪氣가 배출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장 시킴으로써 邪氣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한다. 員의 의미에 대해 『太素』는 “員, 謂之規, 法天而動, 瀉氣者也.”<sup>6)</sup>라 하여 끊임없이 動하는 天의 속성을 취함으로써 氣를 瀉하는 방법으로 해석했다. 『類經』은 “員, 流利也.”<sup>7)</sup>라 하였는데, 邪氣가 매끄럽게 흘러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員은 서질보사와 개합보사가 결합된 형태이지만 단순히 이들의 조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邪氣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자침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 方의 용법과 의미

方의 용법 역시 자침의 전후에 따라 구분된다. 자침 전 피부를 당겨 침을 놓을 위치를 찾은 후 왼손으로는 중심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부를 밀어낸다. 이후 엄전하며 서서히 침을 밀어 넣는데, 이때 반드시 단정하고 안정되게 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잠시 留鍼시켜 자침 부위에 氣가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出鍼하되, 피부를 밀어 穴을 닫아 眞氣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方은 치료 동작이 전반적으로 靜의이고 치료 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자침 행위뿐 아니라 시침자의 마음도 단정하고 안정하게 유지한다. 또한 자침 부위로 氣

가 모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得氣 후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太素』는 “方, 謂之矩, 法地而靜, 補氣者也.”<sup>8)</sup>라 하여 方은 일정하고 안정된 地의 속성을 취함으로써 氣를 補하는 방법으로 해석했다. 『類經』에서도 “方, 卽端正安靜之謂.”<sup>9)</sup>라 하여 의미가 통한다. 종합해볼 때 方은 서질보사와 개합보사의 방식을 포함하나 正氣가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자침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瀉員補方の 원리

『官能』의 員方補瀉는 개합보사와 서질보사의 방식이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수기법의 조합보다는 補瀉의 원칙을 설명한 것에 가까우며, 方과 員은 그 원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方’은 ‘모나다’, ‘나란하다’, ‘바르다’, ‘방정(方正)하다’, ‘바야흐로, 한창’과 같은 뜻을 가지며<sup>10)</sup> ‘員(圓)’은 ‘둥글다’, ‘원만하다’, ‘매끄럽다’, ‘원활하다’, ‘거침없다’ 등을 뜻한다.<sup>11)</sup> 또한 ‘圓方’은 함께 사용될 때, ‘規矩’와 통하여 ‘모난 것과 둥근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天圓地方’에서 유래하여 하늘과 땅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sup>12)</sup> 이를 員方補瀉의 용법에 대응해보면, ‘瀉必用員’의 경우 邪氣를 배출하는 방법으로서 행위가 동적이고 자침 시간과 부위를 확장시키므로 ‘매끄럽다’ 혹은 ‘원활하다’의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반면 ‘補必用方’은 正氣를 기르는 방법으로서 동작과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므로 ‘方正’의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官能』에서 제시한 瀉法과 補法의 속성은 日月星辰이 쉬지 않고 운행하는 하늘과 확고부동한 땅의 대비적 속성과 일치하므로 員과 方은 天地의 의미를 본떠 補瀉의 원리를 命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280.

7)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778.

8)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280.

9)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779.

10) 대한한사전편찬실 편. 대한한사전. 교학사. 서울. 2011. p.1386.

11) 대한한사전편찬실 편. 대한한사전. 교학사. 서울. 2011. p.640.

12) 대한한사전편찬실 편. 대한한사전. 교학사. 서울. 2011. p.1388.

『黃帝內經』의 補瀉法에 관한 논의에서 『靈樞·官能』에 나타난 ‘瀉必用員’, ‘補必用方’의 방법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이어서 살펴볼 ‘瀉必用方’, ‘補必用員’의 오류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馬蒔는 『素問·八正神明論』을 근거로 ‘官能’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sup>13)</sup> 『동양의학대사전』에서는 ‘瀉必用方’과 ‘補必用員’을 각기 표제어로 삼아 설명했으나 ‘瀉必用員’과 ‘補必用方’에 대한 설명은 발견할 수 없다.<sup>14)</sup> 마찬가지로 『黃帝內經研究大成·刺法研究』에서도 ‘八正神明論’의 원문은 補瀉法의 하나로 기재하였으나 ‘官能’의 원문은 제외하였다.<sup>15)</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官能’에 나타난 ‘瀉必用員’, ‘補必用方’의 원칙은 天과 地의 속성을 취한 補瀉의 원리로서 그 만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 2. 瀉必用方, 補必用員

岐伯曰 瀉必用方, 方者, 以氣方盛也, 以月方滿也, 以日方溫也, 以身方定也, 以息方吸而內鍼, 乃復候其方吸而轉鍼, 乃復候其方呼而徐引鍼, 故曰瀉必用方, 其氣而(易)<sup>16)</sup>行焉.

補必用員, 員者, 行也, 行者, 移也, 刺必中其榮, 復以吸排鍼也.

故員與方, 非鍼也. 故養神者, 必知形之肥瘦, 榮衛血氣之盛衰.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素問·八正神明論)<sup>17)</sup>

기백이 말하기를 瀉할 때는 반드시 方을 쓰니, 方은 氣가 方盛한 것이요, 달이 方滿한 것이요, 날이 方溫한 것이요, 몸이 方定한 것이니, 숨이 方吸할 때

침을 들고, 이에 다시 그 方吸할 때를 살펴 침을 돌리고, 이에 그 方呼할 때를 살펴 천천히 침을 끌어 내니, 故로 瀉할 때는 반드시 方을 쓴다고 하니 그 氣가 (쉽게) 운행됩니다.

補할 때는 반드시 員을 쓰니, 員은 行이요, 行은 옮김이니, 자침할 때는 반드시 그 榮에 맞추고, 다시 숨을 들이실 때 침을 뽑니다.

### 1) 方의 의미와 용법

『素問·八正神明論』의 補瀉法 서술은 方과 員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과 실행 방법을 설명한 부분으로 나뉜다. 方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용례를 들어 의미를 밝혔는데, 方은 ‘氣의 方盛’, ‘달의 方滿’, ‘날의 方溫’, ‘몸의 方定’에서 사용된 方과 같은 뜻이다. 이에 대해 『太素』는 “方, 正也.”라 하여 ‘중간’, ‘정확하다’, ‘꼭 알맞다’의 의미로 풀이했으며 經文의 문구를 “氣正盛時, 月正滿時, 日正溫時, 身正乃安時, 息正吸時.”<sup>18)</sup>로 바꾸어 시간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方은 ‘정확한 순간’을 가리키며, 용례로 제시된 氣의 盛衰, 달의 滿空, 날의 寒溫은 주기적 음양변화를 나타내므로 ‘정확한 순간’이란 주기 운동이 정점에 이른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類經』 또한 方을 正으로 풀이했으며(“方, 正也.”), 동시에 “當其正盛正滿之謂也.”라 하여<sup>19)</sup> 최고로 盛하거나 滿한 순간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方에 자침 및 전침하며, 方呼에 발침하는 方의 실행 방법을 설명했다. ‘정점’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흡기가 가장 가득 찬 순간에 자침하고, 다시 흡기가 가장 가득 찬 순간에 전침하며, 호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순간에 발침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호흡을 자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호흡보사의 방식을 따르지만 최고와 최저에 이른 특정 순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13)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p.354-355. “八正神明論作瀉必用方, 補必用員者, 是也. 岐伯曰 瀉必用方者, 以其方盛也, 以月方滿也,…… 其言如此, 此節之方圓誤可知矣.”

1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65,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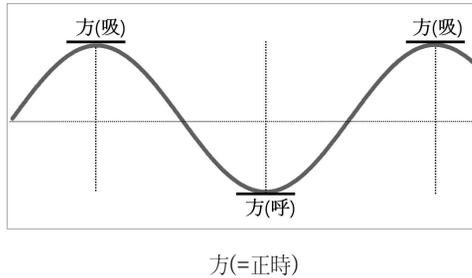
15)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1436-1437.

16) 明抄本과 周本에는 ‘而’가 모두 ‘易’으로 되어있다.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03.)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01.

18)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340.

19)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786.



## 2) 員의 의미와 용법

經文에 풀이된 員의 의미는 ‘운행하다(行)’, ‘옮기다(移)’이다. 이에 대해 『太素』는 “員者行移, 使之齊實也.”<sup>20)</sup>라 하여 운행하고 옮겨서 氣를 골고루 實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으며 『類經』은 “員, 員活也. 行者, 行其氣. 移者, 導其滯. 凡正氣不足, 則營衛不行, 血氣留滯, 故必用員, 以行之補之.”<sup>21)</sup>라 하여 정체된 正氣를 운행시켜 부족한 곳을 補한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두 가지 주석으로 미루어볼 때 行과 移의 목적어는 正氣이며, 員은 正氣를 원활하게 운행시켜 虛한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員의 실행 방법은 먼저 자침의 위치를 언급했는데 “자침이 반드시 榮에 적중해야한다.”라 하였다. ‘榮’의 의미는 주석마다 營氣,<sup>22)</sup> 血脈,<sup>23)</sup> 深部<sup>24)</sup>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刺鍼을 통해 正氣 운행의 효과가 미쳐야하는 목표지점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는 숨을 들이쉴 때 排鍼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復以吸排鍼) 『太素』와 『類經』에서는 ‘排鍼’을 出鍼으로 보았고<sup>25)26)</sup> 『素問直解』에서는 轉鍼으

로 풀이했다. ‘復’라 한 것으로 볼 때, 이 구절에 앞서 자침과 전침의 시점에 대한 설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用方과 마찬가지로 호흡이 보사 수기의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八正神明論』에서 方과 員이 상대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실행 방법 역시 상반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員은 方이 아닌 시간, 즉 呼氣 혹은 吸氣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때를 활용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八正神明論』은 方과 員의 의미를 직접 풀이한 반면 실제 자침 동작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때문에 학자들은 方과 員의 의미가 자침 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素問直解』에서는 方은 右轉, 員은 左轉을 사용하는 염전보사로 설명했다. 염전 시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모양을 모난 것과 둥근 것으로 구분한 것인데,<sup>27)</sup> 원문에 명백하게 제시된 기준인 호흡을 배제하고 손가락 모양에 천착한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논문에서 趙銀龍은 침구 문헌들에 사용된 員方補瀉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提插과 捻轉이 복합된 보사법을 제시했는데, 方의 경우 淺部부터 左轉하면서 深部로 움직이며, 員의 경우 深部로부터 右轉하며 淺部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sup>28)</sup> 談鈺濛은 員方の 의미를 相生과 相剋으로 해석하여 五行 기준의 補瀉원칙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sup>29)</sup> 이들은 나름의 기준을 밝혔지만 『黃帝內經』 원문의 내용에 직접 근거하지 않았으며 염전, 서질, 상생상극 등 기존 보사법들을 동원해 건강부회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비해 謝子妍은 원문과 주석에 근거해 方은 天氣와 人氣가 盛한 시기에 자침하는 것이라 논증했으나 員에 대해서는 氣血의 주행 규율에 근거하

20)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340.  
21)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787.  
22)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340. “行補之法, 刺中營氣”(卷二十四·本神論)  
23)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787. “榮, 血脈也.”(鍼刺類·八正神明寫方補員)  
24)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p.193. “深入爲補, 故刺必中其榮.”  
25)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340. “行補之法, 刺中營氣, 留鍼補已, 因吸出鍼移氣, 使氣實之也.”(卷二十四·本神論)  
2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

문화사. 2006. p.787. “排, 除去也, 卽候吸引鍼之謂.”(鍼刺類·八正神明寫方補員)

27)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p.193. “刺欲瀉之, 則大指退後, 食指進前, 其孔似方, 故瀉必用方. …… 刺欲補之, 則大指進前, 食指退後, 其孔似員, 故補必用員.”  
28) 趙銀龍. 淺析補瀉與“方”“員”. 黑龍江中醫藥. 1. 1991. p.43.  
29) 談鈺濛 外 2人. “瀉必用方”, “補必用員”之新解. 湖南中醫雜誌. 32(5). 2016. p.166.

여 眞氣를 기를 수 있는 때 자침하는 원칙이라는 다소 모호한 해석을 제시했다.<sup>30)</sup>

### 3) 瀉方補員의 원리

「八正神明論」은 員方의 의미와 용법을 서술한 말미에 “故員與方，非鍼也.”라는 설명을 附記하였으며, 注家들은 方과 員이 침의 모양이 아닌 鍼法임을 말한 것이라 해석했다.<sup>31)32)33)34)</sup> 원문에 나타난 方과 員의 용법에 대한 설명이 소략한 것에 비추어볼 때, “침이 아니다.”라는 말은 鍼形이나 자침 시 수기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앞서 설명한 員方이 補瀉의 원리임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方은 호흡이 정점에 이른 때를, 員은 호흡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때를 선택해 자침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補瀉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用方의 원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用方에 관한 원문의 설명이 用員에 비해 비교적 자세할 뿐 아니라 호흡과 같은 주기운동에서 정점이라는 순간이 가지는 특징이 나머지 비해 분명하기 때문이다. 瀉法에 반드시 方을 사용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설1 : 正氣가 가장 盛한 순간

「八正神明論」은 方盛, 方滿, 方溫 등의 용례를 들어 方의 의미를 설명했으며, 일부 注家들은 正氣가 가장 盛한 것이라 해석했다. 『동양의학대사전』에서도 ‘瀉必用方’은 친지자연과 인체의 기운이 모두 왕

성할 때 사법을 써야한다는 의미로 풀이했다.<sup>35)</sup> 이에 따르면 方은 주기 운동의 최고점을 뜻하며, 氣가 가장 盛한 순간이므로 瀉法을 쓰더라도 正氣의 손상이 가장 적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박찬국은 氣血이 가장 융성하여 表로 드러나기 때문에 正氣와 邪氣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正氣의 해침 없이 邪氣만을 빼내기 용이하다는 견해를 밝혔다.<sup>36)</sup>

그러나 이 가설은 方이 최고점, 즉 盛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수용될 수 있다. 하지만 經文을 살펴보면 이미 ‘方呼’라는 표현이 보이므로 盛과 衰 모두에 方의 시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도 盛과 方은 온전히 통한다고 보기 어렵다. “以月方滿也”를 예를 들면, 달이 상당히 찬 것을 가리키고자 한다면 둥근 모양인 員이 方보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따라서 ‘方滿’은 달이 ‘완전히’ 가득 찬 순간을 지목한 것이며, 하나의 시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方이 ‘가장 盛함’을 가리킨다면 그와 대비되는 표현인 員은 ‘가장 衰함’을 가리켜야 하는데, 正氣를 운행(行)하고 이동(移)시키는 것과 가장 衰한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 ② 가설2 : 호흡이 가장 안정된 순간

두 번째 가설은 方이 瀉法을 시행할 때 邪氣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호흡이 안정된 순간을 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吸則內鍼，無令氣忤，靜以久留，無令邪布，吸則轉鍼，以得氣爲故，候呼引鍼，呼盡乃去，大氣皆出，故命曰瀉。

숨을 들이마실 때 침을 꽂아 氣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오래 머물러 사기가 퍼지지 않게 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침을 돌리되 得氣를 기준으로 삼고, 내설 때를 살피 침을 뽑아 내쉬는 숨이 다 함에 (침을) 제거하면 大氣가 모두 나오니, 故로 이름하여 瀉라 합니다.(素問·離合眞氣論<sup>37)</sup>)

30) 謝子妍, 少議“瀉必用方”, “補必用員”.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5(5), p.584.

31)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340. “員之與方, 行鍼之法, 皆推排鍼爲補瀉之”(卷二十四·本神論)

32)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787. “非鍼之形, 言鍼之用也”(鍼刺類·八正神明寫方補員)

33)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p.193. “故員與方, 乃之員活, 氣之方盛, 非但針之方員也.”

34) 孫國中, 方向紅 点校, 黃元御 原著. (黃帝內經名家評注選刊)素問縣解.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249. “員與方, 乃鍼法耳, 非鍼也.”

3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519.

36)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집문당. 2005. pp.516-517.

「八正神明論」의 다음 편인 「離合眞邪論」 역시 鍼補瀉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중 瀉法은 吸氣에 자침 및 전침하며, 呼氣에 발침한다는 점이 ‘瀉必用方’의 동작과 흡사하다. 이 문장 중간에 쓰인 “無令氣忤, 靜以久留, 無令邪布”는 瀉法의 시행 중 邪氣가 요동쳐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갈 것을 경계한 말인데, 方은 운동이 정점에 도달하여 잠시 멈춘 것과 같은 순간이므로 호흡으로 氣가 요동치거나 邪氣가 퍼질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설은 瀉法의 활용시 주의점으로 ‘안정’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用方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만약 안정이 주된 목적이라면 方吸, 方呼 중 어느 시점을 택하는가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호흡보사의 원칙을 적용하되 안정된 시점을 택한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때 方은 일종의 주의사항에 해당되므로 瀉法의 원칙을 명명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부수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이 가설이 해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는 用方의 마지막 부분에 쓰인 “故曰瀉必用方, 其氣而行焉”의 의미이다. 『素問』의 판본에 따라 ‘而’는 ‘易’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sup>38)</sup> 이를 따라 해석하면 “瀉法에는 반드시 用方하여 氣가 (쉽게) 행하도록 한다.”라는 의미이다. 만약 用方의 원리가 호흡이 안정된 순간을 골라 邪氣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氣를 잘 행하게 한다.”라는 구절은 瀉法을 최종 정리하는 문구로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가설 역시 ‘瀉必用方’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가설3 : 음양 전환의 순간

세 번째 가설은 ‘瀉必用方’이 邪氣의 배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正氣의 偏盛에 의한 實證을 해소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음양운동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을 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經言 氣之盛衰, 左右傾移, 以上調下, 以左調右,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04.

38) 明抄本, 周本 『素問』과 『類經』이 이에 해당된다.

有餘不足, 補瀉於榮輸, 余知之矣. 此皆榮衛之傾移, 虛實之所生, 非邪氣從外入於經也. 余願聞邪氣之在經也, 其病人何如, 取之奈何. (素問·離合眞邪論)<sup>39)</sup>

經에 말하길, 氣의 盛衰가 좌우로 기울어 옮기니, 위로써 아래를 조절하며 왼쪽으로써 오른쪽을 조절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것을 榮輸에서 補하고 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營衛의 기울어 옮김과 虛實로 생기는 바를 말한 것으로, 邪氣가 밖에서부터 經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나는 邪氣가 經에 있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 사람을 병들게 함은 어떠한고, 취하여 다스림은 어떻게 합니까?

『素問·離合眞邪論』의 질문에서 황제는 營衛가 기울어져 옮김과 虛實의 발생에 관한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邪氣가 밖으로부터 經에 들어온 병의 양상과 치법을 듣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正氣의 운행이 기울어져 발생한 虛實과 邪氣가 外入한 병의 虛實이 같지 않으며 각각에 관한 補瀉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外邪가 經에 들어온 경우를 다스리는 補瀉法의 예시는 앞서 두 번째 가설에서 살펴본 「離合眞邪論」의 문장을 들 수 있다. 반대로 正氣의 치우침에 대한 補瀉法의 예시로는 陰陽盛衰에 따른 補瀉原則을 논한 『靈樞終始』를 들 수 있는데, 이편에서 陰陽은 五臟과 六腑, 중심부와 말초를 가리킨 것으로 外邪의 침입과 무관하며 虛實은 正氣의 偏盛과 偏衰를 말한다.<sup>40)</sup>

「八正神明論」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반부에서는 日月星辰의 盛衰 및 그에 따른 人氣의 盛衰를 말했고, 이어서 員과 方의 補瀉를 설명했으며, 마지막에 形神의 의미를 설명했으므로 전반적으로 正氣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補瀉法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다도 邪氣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그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04.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71. “陰者主藏, 陽者主府, 陽受氣於四末, 陰受氣於五臟, 故瀉者迎之, 補者隨之, 知迎知隨, 氣可令和.……陰盛而陽虛, 先補其陽, 後瀉其陰而和之. 陰虛而陽盛, 先補其陰, 後瀉其陽而和之.”

말미에 神, 榮衛, 血氣를 길러야 함을 강조한 것 역시 正氣를 위주로 설명한 관점을 드러낸다. 또한 『鍼灸大成』에서는 瀉方補員을 가리켜 營衛를 서로 교접하게 하는 것(瀉用方而補爲圓, 自然榮衛相交接)이라 하였다.<sup>41)</sup>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瀉必用方은 邪氣의 배출보다는 正氣의 기울어짐을 해소하는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황제의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正氣의 偏盛과 偏衰의 발생 원인은 ‘기울어져 기울(傾移)’, 즉 運行의 불균형이다. 한 방향의 흐름이 偏強하면 氣가 물리는 곳은 盛과 鬱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虛衰하게 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氣의 쓸림이 발생한 쪽은 瀉하고 부족한 쪽은 補해야 하는데, 方은 氣를 瀉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적합한 순간이다. 方은 순환이 정점에 도달해 방향이 전환되는 때로서 陰에서 陽, 혹은 陽에서 陰으로 반동하는 힘이 가장 큰 순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方吸의 순간 자침하거나 전침하면 呼氣가 터져 나오는 힘을 최대한 이용해 氣를 破할 수 있고, 方呼의 순간 발침하면 흡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가설을 적용하면 앞서 밝히지 못했던 “故曰瀉必用方, 其氣而行焉”의 의미도 보다 명확해진다. 여기서 ‘其氣’는 偏盛한 부분에 울체된 氣를 가리키며, 方을 사용해 이를 瀉함으로써 정체된 氣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方에 대해 추론해 보면, 員은 호흡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氣가 일정한 방향으로 운행하는 때이다. 이는 正氣를 끌어들이기 용이한 때라 할 수 있으니 비유하자면 논밭에 물을 댈 때 고인 물을 퍼담는 것보다 흐르는 물을 끌어오는 것이 쉬운 것과 같다. 윤기령은 刺鍼을 통한 補法은 外氣를 불러들여 正氣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外脫을 방지하거나 체내 正氣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虛한 부위로 正氣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虛實조절을 통한 補法의 근거로 『八正神明論』의 ‘補必用員’을 제시한 바 있다.<sup>42)</sup> 즉 員은 正氣의 흐름이 不利한

부위에 발생한 虛證을 다스리고자 하는 방법이며, 氣의 운행이 순조로운 때가 正氣를 불러들이기 적합한 때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가설의 검토한 결과 세 번째 가설이 앞선 두 가설에 비해 方과 員이라는 字義와 원문의 내용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 가설은 이전에 제시되었던 설명들에 비해 「八正神明論」의 用方과 用員이 祛邪와 扶正이 아닌 正氣의 치우침에서 발생한 虛實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의의가 있다. 이는 ‘맞이하 여 빼앗고(迎而奪之)’, ‘쫓아서 다스린다(隨而濟之)’는 迎隨의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林鎭錫은 이전 논문에서 迎隨補瀉가 鍼向을 기준으로 補하거나 瀉하는 手技法이 아니며, 邪氣를 맞이하여 빼앗는 것과 正氣를 쫓아서 불러오는 補瀉의 원칙임을 밝힌 바 있다.<sup>43)</sup> 邪氣의 의미를 外邪에 국한하지 않고 正氣가 순환되지 못해 정체되거나 울체된 것으로 확장해 본다면 ‘瀉必用方’은 가장 盛한 순간 有餘한 氣를 맞이하여 빼앗는 것이며, ‘補必用員’은 不足한 부위에 氣가 흘러들 수 있도록 불러들인다고 해석될 수 있다.

### III. 考察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素問·八正神明論』과 『靈樞·官能』에 사용된 員方補瀉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官能」에 서술된 方은 靜的인 동작으로 침을 운용하고 의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함으로써 안정적으로 正氣를 補하는 원칙을 말한다. 「八正神明論」에서 方은 호흡이 정점에 도달한 순간을 가리키는데, 이 순간에 호흡은 일시적으로 멈춘 듯 하며 呼氣와 吸氣 중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처럼 두 편에 사용된 方은 의미와 목적이 상이하지만 ‘方正’의 의미를 공유한다. 한편 員은 「官

41) 張縉 主編, 楊繼洲 原著. 鍼灸大成校釋(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429.

42) 윤기령 외 3인. 鍼無補法の 의미에 대한 考察-『黃帝內經』의 補瀉法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31(2).

2018. p.147.

43) 林鎭錫. 迎隨補瀉 研究. 大韓原典醫學學會誌. 12(2). 1999. p.292.

能』에서 자침 전후의 동적인 동작을 통해 邪氣가 고착되는 것을 막고,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통해 邪氣의 원활한 배출을 유도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八正神明論」에서의 員은 호흡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는 순간을 이용해 正氣가 원활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칭한다. 이처럼 員은 ‘圓滑’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갖는다.

두 편에 사용된 員과 方은 상통하는 속성을 갖지만 補瀉를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瀉必用員’, ‘補必用方’을 원칙으로 제시한 「官能」의 경우 補瀉는 주로 자침 행위자의 動靜을 기준으로 설명된다. 반면 ‘瀉必用方’, ‘補必用員’을 제시한 「八正神明論」의 경우 呼吸에 따른 자침 시점을 위주로 補瀉를 구분하므로 그 기준이 환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官能」에서의 員方은 正氣를 補하고 外邪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補瀉의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며 扶正祛邪의 원칙을 따른다. 「八正神明論」은 그와 달리 正氣의 치우침으로 생겨난 虛實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補瀉의 대상이 모두 正氣에 속하며, 기준을 환자의 호흡으로 삼은 것 역시 이러한 원리와 통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黃帝內經』에 나타난 鍼의 補瀉法은 밖에서 침입한 邪氣의 대응에 초점을 둔 것과 내적 불균형 조절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外邪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正氣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는 補瀉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단법에서도 엿볼 수 있다. 外感의 경우 邪氣 위치를 정확히 탐색하는 것이 진단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방법은 瘀血, 腫脹처럼 겉으로 드러나거나 환자가 느끼는 이상감각을 통해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었으며, 이후 脈診을 통해 탐지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한 예로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脈에 들어온 外邪를 찾아내는 방법을 서술했는데, 먼저 寸口에서 두드러지게 大脈이 나타나는 곳을 찾고 만약 일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는 三部九候를 살핀다고 하였다.<sup>44)</sup> 여

기서 제시된 寸口脈과 三部九候脈의 진맥은 脈象을 세밀히 살피는 것은 아니며 특정 부위의 脈이 도드라지게 뛰는 것과 같은 異常을 파악해 邪氣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반면 『難經』에 사용된 특징적 보사원칙은 ‘實則瀉其子, 虛則補其母’이며,<sup>45)</sup> 여기서 虛實판단과 補瀉의 대상은 모두 五行, 즉 臟腑이다. 따라서 ‘瀉其子’의 목적 역시 外邪의 배출이 아닌 臟腑 氣血의 偏盛을 해소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難經』에서 주로 사용한 獨取寸口脈法은 寸關尺에 나타나는 부위별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에 배속된 臟腑의 虛實을 상대 평가함으로써 正氣의 치우침을 확인한다. 때문에 浮沈, 滑澀 등 陰陽으로 상대되는 脈象이 진단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는 邪氣를 특정부위에 존재하는 실체로 파악하고 제거하려는 이전의 방식과 비교할 때, 五臟六腑를 포함한 인체 전반의 虛實을 파악하고 조절한다는 점에서 고차원적 치료라 할 수 있다.

침구학 문헌 중에 나타난 員方補瀉를 살펴보면 『黃帝內經』에 언급된 다른 補瀉法들과 달리 원문을 인용하였을 뿐 활용법을 추가로 설명하거나 적용한 경우를 볼 수 없다. 이는 員과 方이 실용적 의미를 갖는 수기법이라기보다는 「八正神明論」에 “故員與方, 非鍼也.”라 한 것과 같이 補瀉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IV. 結論

본 연구는 『靈樞·官能』과 『素問·八正神明論』에 나타난 員方補瀉의 용법과 의미를 분석하고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靈樞·官能』에 서술된 方은 자침 동작과 의사의 마음을 靜의으로 유지하여 正氣를 안정적으로 補하는 원칙을 말하며, 員은 자침 전후의 動的인 동작과 邪氣가 배출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04. “夫邪之入於脈也, 寒則血凝泣, 暑則氣淖瀾, 虛邪因而入客, 亦如經水之得風也, 經之動脈, 其至也亦時躁起, 其行於脈中循循然, 其至寸口中手也, 時大時小, 大則邪

至, 小則平, 其行無常處, 在陰在陽, 不可爲度, 從而察之, 三部九候, 卒然逢之, 早過其路.”

45)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0. p.161.

- 장을 통해 사기의 원활한 배출을 유도하는 원칙을 말한다.
2. 『素問·八正神明論』에 서술된 方은 호흡이 정점에 이른 순간을 자침에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員은 호기와 흡기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를 활용해 자침하는 방법을 말한다.
  3. 『素問·八正神明論』에서 用方이 瀉法으로 사용되는 원리는 陰陽運動이 정점에 이르러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이용함으로써 正氣가 쏠려 발생한 偏盛을 破하는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며, 用員은 호흡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때를 이용함으로써 正氣가 부족한 방향으로 원활히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4. 두 편에 사용된 方은 ‘方正’의 의미를 공유하며, 員은 ‘圓滯’의 의미를 공유한다. 이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하늘과 고정되고 안정된 땅을 상징하는 天圓地方의 의미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5. 『靈樞·官能』에서 설명한 員方補瀉는 침을 놓는 사람의 動靜이 기준이며, 補瀉의 대상이 正氣와 外邪로 명확히 구분된다. 반면 『素問·八正神明論』에서 설명한 員方補瀉는 환자의 호흡을 기준으로 하며, 正氣의 치우침으로 생겨난 虛實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補瀉의 대상이 모두 正氣에 속한다.

## Reference

1.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2. 談鈺濛 外 2人. “瀉必用方”, “補必用員”之新解. 湖南中醫雜誌. 32(5). 2016. <https://doi.org/10.16808/j.cnki.issn1003-7705.2016.05.088>
3. 대한한사전편찬실 편. 대한한사전. 교학사. 서울. 2011.
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6.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집문당. 2005.
7. 謝子妍. 少議“瀉必用方”, “補必用員”.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5(5). 2019.
8. 孫國中, 方向紅 点校, 黃元御 原著. (黃帝內經名家評注選刊)素問縣解. 北京. 學苑出版社. 2010.
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10. 윤기령 外 3人. 鍼無補法의 의미에 대한考察- 『黃帝內經』의 補瀉法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1(2). 2018. <https://doi.org/10.14369/jkmc.2020.33.3.01>
11. 林鎮錫. 迎隨補瀉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2). 1999.
12.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13. 張縉 主編, 楊繼洲 原著. 鍼灸大成校釋(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14. 전국한학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15. 趙銀龍. 淺析補瀉與“方”“員”. 黑龍江中醫藥. 1. 1991.
16.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